

# 과학관 5층 연구실에서 화재 발생해

### 발생 원인은 아직 조사중... 약 281만원의 재산 피해 발생,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지난 11월 20일 밤 10시 6분에 과학관 502호 기능성유기분자연구실에서 연구실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약 28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일 우리 대학교 대학원 신아무개 씨는 낮 2시에 출근 후 오후 5시에 퇴실, 밤 9시 59분에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두고 온 작업을 갖고 10시 3분에 최종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1분 뒤인 10시 4분, 과학관 종합방재센터에 화재가 감지돼, 관제차 삼비인원부가 즉시 출동해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소화활동 지원했다.



502호 연구실과 한 실험실 501-D, 503호도 피해를 입었다. 또 과학관 건물 외벽 유리창이 파손됐으며, 홀출구 중앙실명등, 전정형 냉난방기도 불에 탔다.

삼비인원부는 '과학관 502호 실험실 화재 사고' 발생보고를 통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실에 사고경위서 제출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고는 실험실 환경안전관리위원회에도 보고

했고, 긴급복구공사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추후에 어떠한 시정을 보일지 모르겠다. 재산 피해액은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 밝혔다.

백상이지언과하루 (06)씨는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사고가 잦아들지 않았다. 실험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 만 인명피해가 없어 서대평 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기자 urgr-boy@  
사민 박성준 기자 gansan@

# '소통'으로 하나된 언론학부

### 지난 11월 26~28일 Yonsei Communication Festival 개최

연분홍보영상학부가 주최하는 'Yonsei Communication Festival 2008'이 "소통"을 주제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사흘간 광혜일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첫째 날인 26일 저녁에는 '영화감독이 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영혼론 영화감독의 특강이 열렸다. 장 감독은 영화 '박봉민 가을 사랑'의 시나리오 작업과 '타이타닉'의 감독을 맡는 등의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장 감독은 이 강연에서 아버지 사정 실패로 방황하다 연극을 전공하고 방송사에 입사한 뒤 영화계로 진출하기까지의 꾀꾀 많은 인생담을 들려줬다.

장 감독은 또 현재 영화시장의 불황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절은 반드시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나눠 팀 부족한 사람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며 "내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변화를 즐기는 삶'에 관

한 OBS강연 TV 주회장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의 주제처럼 실패로 주 사장은 중학교 고교에서 OBS강연 TV 사장까지 직업을 4번이나 바꿨다. "규칙적인 사람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주 사장은 "스펙이 스펀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변화가 변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또한 주 사장은 언론학부 학생들을 격려해 언론계 성공비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실과 창의성을 갖춘 능력 △표현력과 상상력을 통한 매력 강조하면서 주 사장은 "이제는 스타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며 '스타'PD가 되고 스타가 되자"고 조언했다.

강연에 참여한 최철웅(신방·03)씨는 "방송사나 언론사 입사 외에도 많은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며 "너무 주 제되고 유리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는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연분홍보영상학부의 밤 '왕자'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세호, 오지은 기자 kumpu@



연세의 '몸짱'은 누구? 지난 11월 28일 대강당에서 우리대학교 역도부 주최로 학내 최고의 몸짱을 뽑는 'Mr.Yonsei 선발 대회가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각자의 육체미를 뽐내며 관중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박성준 기자 behappy@yonsei.ac.kr

# 당신의 감성을 사로잡을 연세의 문학, 2008 연세문화상

### 시·소설·희곡 세 분야에서 100여편 넘게 응모,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수여돼

지난 11월 25일 '연세춘추'에서 주최한 2008년 연세문화상(이하 연세문화상) 시상식이 종합관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김관중 총장은 축사를 통해 "훌륭한 문학작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수상자들은 앞으로 더욱 정진해 더 나은 작품을 써달라"고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진(경제·06)씨는 시 부문에 이미 기용되어 있었다. 유동주 문학생은 수상했다. 허윤(국문·06)씨는 소설(선고)로 비평론 문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스키크(다이세)대문(04)씨는 희극 '모두 웃

고있습니까?'로 우수문학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공모한 연세문화상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동주 문학상 분야에는 45편의 화형이 112편의 시를, 비평론 문학상 분야에는 3편의 화형이 3편의 소설을 부수었다. 오하성 문학상 분야에는 4편의 화형이 4편의 희곡을 응모했다.

심사는 시·소설 분야 조영희 교수(문과)·현대문학 △소설 분야 소실기 성석제(법학·79) △희극 분야 이경원 교수(문과)·영문학의 평가로 이뤄졌다.

오하성 문학상을 수상한 스키크씨는 "배우로서의 작품을 제출할 때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작품이 제 날개를 펼칠 때인 것 같다"며 "사람들에게 글로써 평가받을 것 같아 웃고 재밌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오지은은 "나는 시를 잘 쓰려고 시도하기도 많았지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들 미안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박기림 기자 adwalker@

#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당'을 말하다

### 지난 11월 26일 한나라당 전여욱 의원의 특강 진행 정당 정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활용 강조해

한나라당 전여욱 의원의 특강이 지난 11월 26일 낮 3시에 열렸다. 특강이 열린 연회관 313호는 전 의원의 강연을 들으려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전 의원은 "현실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당'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서 나왔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정치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당의 유래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UN 미래보고서가 정치인을 제1인칭 사립직업으로 꼽은 것을 들며 정당, 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회복해줘 가는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촛불시위에 대해 "네라들"에 대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직접 정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당 정치를 거부하는 표현이다"라고 정당 정치의 위기를 강조했다. 많은 시민들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위기는 기회"라며 "이를 정당 정치가 더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네라들"과 대립하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포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이 △정치 비용 절감 △참여의 자유 무한대 확산 △개별적 시민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긍정을 갖고 있음은 언급하며 "정당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현실 정치의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http://www.oktalktalk.com)를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온라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강연에 참여한 이재진(신방·07)씨는 "정당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부정적 태도를 재고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혔다.

강유희 기자 biyoung@yonsei.ac.kr

### 바로잡습니다

▶ 지난 1602호 1면의 '총학 선거' 두 선보 모두 경고 2회 기사에서 '연세 36.5'는 △후보자 자필 서명된 추천인 서명용지 복사'를 '연세(36.5)'는 스리플렛 인쇄'로 바로잡습니다.

△재발 연세도 △중선권위 포스터를

프로필 사진 미비 △연세서 미남 △자료집과 리플렛 공약의 불일치 등 '재발 연세'도 △중선권위 포스터를 프로필 사진 미비 △연세서 자필 서명된 추천인 서명용지 복사'로 바로잡습니다.

강유희 기자 biyoung@yonsei.ac.kr

### 2009학년도 1학기 입사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원주캠퍼스 재직생(병역특례 제외) 및 대학원생 포함
2. 신청기간: 12.4(목) 09:30 ~ 12.13(목) 16:30
3. 신청방법: 원주캠퍼스 입사신청서(12.3(수) 09:30 ~ 12.12(수) 16:30)
4. 신청장소: 원주캠퍼스 입사신청서(12.3(수) 09:30 ~ 12.12(수) 16:30)
5. 입사 대상자 발표: 2009년 2월 초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6. 입사기준 및 일사비

학사	성별	입사기준	입사비	비고
매자1, 2학년	남, 여	3인1실	400,000	공동생활, 개별A/C
매자3학년	남, 여	4인1실	400,000	
세연1, 3학년	남, 여	3인1실	700,000	개별사실
세연2, 3학년	남, 여	2인1실	998,000	
정원1, 2학년	남, 여	3인1실	998,000	
- \* 비평론(부속)50,000원 별도

### 2008학년도 겨울학기 입사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연세대학교 재학생
2. 신청기간: 11.18(화) 09:30 ~ 11.20(목) 16:30
3. 신청방법: 원주캠퍼스 입사신청서(12.3(수) 09:30 ~ 12.12(수) 16:30)
4. 신청장소: 원주캠퍼스 입사신청서(12.3(수) 09:30 ~ 12.12(수) 16:30)
5. 입사기준 및 일사비

개방학사	성별	인원	입사비	비고
매자학사	남	250명	110,000	3인1실
매자학사	여	300명		4인1실
세연학사	여	450명	190,000	2인1실
- \* 세연, 2학년는 청대교체 관계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 2008학년도 겨울방학(장기) 입사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연세대학교 재학생(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2. 신청 및 등록기간: 12.1(월) ~ 12.12(금)
3. 신청 및 고지서 배부: 생활관 사무실(세연학사 2인1실 옆)
4. 입사기간: 12.2(화) 13:00 ~ 2.14(목) 13:00
  - \* 퇴사일자(12월)을 입사할 원하는 학생은 15:00 이후 신청서류 배정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청대교체 입사할 수 있음(단, 입사 후 청대교체 불가)
5. 개방학사 및 일사비

개방학사	성별	입사비	비고
매자1학사	남	230,000	(4인1실)
매자2학사	여	330,000	(2인1실)
- \* 세연, 2학년는 청대교체 관계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6. 등록금: 교내 우리은행
7. 홈페이지 신청: 12.1(월) ~ 12.12(금)까지 장기 본인과 홈페이지의 학번, 이름, 학과, 생활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신청(☛mail:pmh3207@yonsei.ac.kr)
8. 온 비 줄 세션: 교내, 캠퍼스 등
9. 입사비 환불: 입사서지 일로부터 입사비용(매자190,000원, 세연130,000원) 공제

가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033) 760-2553, 0898 Fax 033) 760-2564 >>

[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http://dragon.yonsei.ac.kr/~dorm123/]